

CONTENTS

한반도 동향

2022년 4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III. 북한 동향

1. 주요 일지

2. 북한 매체 주요 보도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 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주요 연구 및 북한 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열병식 진행은 이번이 처음...

미국

The U.S. Needs a Strong Response to North Korea's ICBM Launch The Heritage Foundation

김정은 위원장은 표면상 민간 위성 발사로 위장하기보다 ICBM 발사를 강조...

중국

긴장 고조 속 남북 정상 친서 교환, 그 의미는? 해방일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남다른 의미를...

일본

당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 ERINA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보고에서 눈에 띄는 점들은...

러시아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북핵 문제는 시의적인 사안인가 Valdai Discussion Club

화성-17호가 발사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이 공식적으로 폐기...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개최 노동신문

4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은...

I

주요 정세

4.1.(금)

北,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이동 포착에 따라 SLBM 준비 가능성
美, 북·중·러 위협에 따라 '선제 핵공격 가능' 방침 유지
군, 北 최전방 도발 우려에 DMZ 유해 발굴 중단

4.2.(토)

서욱 국방부 장관, “北 미사일 발사 징후 명확 땀 정밀 타격” 경고

4.4.(월)

北 김여정, 서욱 국방부 장관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 “南 심각한 위협 직면할 것”
美, 北 ICBM 관련 5개 기관 추가 제재
北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최근 한국의 대응훈련에 대해 “겁 먹은 개 요란히 짚어” 비난

4.5.(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COVID 등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 천명... 안보·경제 등 '포괄적인 전략동맹'” 강조
北 김여정, “남조선은 우리 주적이 아니지만, 선제타격 시 핵무력 사용...” 공언

4.6.(수)

北, 금강산 해금강호텔 철거 막바지 정황 포착

4.7.(목)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백악관에 윤석열 당선인 친서 전달 및 미군 전략자산 배치 협의

4.9.(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북한은 불량정권... COVID 추진 필요”

4.11.(월)

中,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반대 입장
군, 내년 말 첫 독자 정찰위성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 예정 발표
방위사업청, 北 장사정포 수도권공격 방어용 '한국형 아이언돔' 2029년 개발 발표
北, 김정은 추대 10주년 수상화 보고대회
北 김정은, 평양 1만 채 대규모 주택단지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4.12.(화)

美 핵 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함 동해 공해상 진입... "대북경고 메시지 발신" 의도
美 의회조사국, "北 ICBM 역량이 향상되었으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
아난티 기업, 골프장 및 리조트 등 금강산 사업 정리 예고

4.14.(목)

美, 대북 담배 수출 금지 추진 등의 추가 제재안 유엔 안보리 배포
北 김정은, 태양절을 앞두고 군 장성급 승진 인사 단행
윤석열 당선인, "北은 주적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은 부당... 美와는 더 강력한 동맹"

4.15.(금)

우크라이나, 한국에 러시아제 'T-80U 전차'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특정 무기체계를
군용물자로 요청

4.16.(토)

北, 함흥 일대 동해 상으로 '신형 전술무기' 2발 발사

4.18.(월)

윤석열 당선인, 日 정책협의단 파견을 통해 관계 개선 논의 예정
美 국방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北 더 많은 미사일로 응답"

4.19.(화)

美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北 핵실험 강행 시 유엔 안보리 강력 대응" 강조

4.20.(수)

문재인 대통령, 北 김정은에게 친서 보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

윤석열 당선인, 성 김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에서 “한·미 공조” 강조

北, 금강산 남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 건물 8개 동 모두 철거

美, 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 관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 우려 표명

4.21.(목)

北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 회신…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

EU, 北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개인 8명, 기관 7곳 독자 제재 추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日 총리 야스쿠니 봉납에 대해 “과거 역사 직시와 올바른 역사관 가질 필요” 강조

4.22.(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완성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
외교부, 日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

4.23.(토)

北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선제타격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며, 핵전쟁발발의 현실화를 앞당겨” 비난

4.24.(일)

윤석열 당선인, 美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회 되면 쿼드가입 긍정 검토”

北 외무성, 북러정상회담 3주년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

4.25.(월)

北, 역대 최대 ‘빨치산 90주년 심야 열병식’…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및 신형 SLBM 등 종류별 운용수단 총동원

北 김정은, “핵무력 더욱 강화, 국가이익 침탈 시 사용”

北 김정은,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군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적대세력의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시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 강조

4.26.(화)

中 외교부, 北 핵무력 강화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 밝혀

유엔, “北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하여 대화로 복귀” 촉구

4.28.(목)

美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 주장

외교부, 미국과 EU에 “이란핵합의(JCPOA) 협상의 조속한 진전 노력” 요청

통일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긴장 조성 행위 중단” 촉구

한일정책협의대표단, “일본은 한일 갈등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금화 문제, 위안부 문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 필요”

4.29.(금)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100만 장 北에 살포

문재인 대통령, “北 미사일·핵 전력 높일수록 우리도 방어·응징 능력 높여야”

中 외교부,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 설명

4.30.(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중외교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조건 없는 대화문 열어둘 것”

美 국무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는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며 자제와 대화 복귀 촉구”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홍민, 『Online Series』, CO 22-09호, 통일연구원, 2022.04.06.)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등장할 때마다 북한의 전술적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남.
 - 공세적인 전술적 변화의 길목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일종의 거칠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근까지 대남 비난은 주로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담화는 노동신문 4면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공개함.
 - 저변에는 남북관계를 언제든 북한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올해 1~3월 북한 대외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는 지난해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
 - 여러 비난 소재 중 비중 있게 다룬 것은 한국 정치권 내에서 대두됐던 ‘선제타격’론이며,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공개도 담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입장에서는 ‘핵 단일 목적 사용’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후퇴함에 따라 기존처럼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저강도 핵탄두에 의한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음.
 - 실제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무기의 다종화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북한의 이런 무기 개발 행보는 미국의 핵정책 및 동북아 군비경쟁에 조용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은 지난해 9~10월부터 전통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대결적 ‘주적론’을 부정하고 한국이 주적이 아니며 전쟁이 주적이며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북한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의 무기 개발이 특정 주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한 일반적 안보 차원의 개발이란 논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임.

-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대미 최소억제력 확보의 어려움,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중장기 전력증강에 대한 초조함을 핵보유국이라는 자기 위상 규정을 통해 위협적으로 한국에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음.
- 이번 담화는 북한의 4월 일정에 대한 사전 정지 또는 예비적 경고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대남 비난의 급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미 비난의 부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미 직접 비난에 신중한 배경에는 일단 선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닫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음.
- 향후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태도를 다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향후 공세적 전략무기 개발 이후 일정한 완성 시점에서 정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종용당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한적인 핵군축 차원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임.
 - 다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길 역시 배제하기 어려움.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공동전선을 통해 자신의 무기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 및 기술적 협력, 그리고 북미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될 때를 대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l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ld=1550376>

■ 신정부 출범초기 남북관계 관리방안

(최용환·이기동·김성배, 『전략보고』, 16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4.15.)

- 5년동안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주력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정책적 딜레마는 여전히 지속
 -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더욱 악화
-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모라토리엄 폐기 이후 추가 전략 도발, 9.19 군사합의 무효화 선언 및 국지도발로 전망됨.
-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전략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한반도도 예외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vs.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가 강화되면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신정부 출범 초기의 한반도와 주변 환경은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 경로를 규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신정부 출범 초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긴요함.
- 북한의 장기전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확보하여 정세유동성에 대비해야 함.
- 북한의 전략도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돌발상황, 국지도발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등 현안별 대응 방안 필요
 -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는 남북관계 현안을 넘어서 글로벌 안보현안인 만큼 철저하게 한미 및 국제 공조 차원에서 대응, 북핵문제 장기교착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장억지,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태세 강화 필요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살포동향 적발 시 실정법 행사를 통해 관리
 - 보복억지 차원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시 비례적 대응 또는 원점 타격 의지를 과시하는 것도 중요
-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비와 함께, 국면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필요
 - ▲신정부 출범 초기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 관리 ▲한중·한러 관계 관리를 통한 북한의 대외전략 대응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인한 문서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원문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368&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조한범, 『Online Series』, CO 22-10호, 통일연구원, 2022.04.14.)

-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소련의 해체 이후 동유럽을 향한 나토의 동진은 거침이 없었음. 사실상 나토가 러시아를 포위한 형국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에서 안보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됨.
 -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혼란은 지속되었으며, 친러시아와 친서방 노선으로 나뉜 국민의 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었음.
 -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독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발전과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자국의 외교안보적 안정성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음.

- 푸틴 대통령은 시계추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큰 정치적 오판을 한 셈임.
 -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강제합병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
 - 국지전인 크림반도 합병 및 돈바스 내전과 달리 러시아는 장기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국제사회의 대응도 강력함. 특히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명운을 걸고 대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방면에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에 기반을 둔 유럽질서의 변화 ▲러시아는 전 유럽의 적이 됨.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국방비 증액 대열에 동참 ▲일본 역시 군비증강과 보통국가를 지향할 개연성
 -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각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보수·우경화의 개연성도 있음.
 -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 진영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한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위협했다는 점에서 NPT체제의 근간을 흔들었음.
-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자발적 비핵화를 선택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북·중관계를 강화해온 북한이 향후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중·러 연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공약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등 한미관계 강화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대전환기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모색할 시점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Id=1550402>

■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홍민, 『Online Series』, CO 22-11호, 통일연구원, 2022.04.28.)

-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열병식 진행은 이번이 처음임.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피날레로 역대급 무기 동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인 국방력을 과시하는 순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연계하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상징적 효과 역시 노린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위원장 연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혁명적 무장력의 전통, (2) 정치사상적 강군화, (3) 최대 속도의 핵무력 강화 발전, (4) 제2의 핵무기 사명(사용 교리)
 -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명분을 찾는 특수한 상황 논리에서 안보 차원의 일반론으로 의도적으로 변화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와 북미협상을 분리하는 이중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김 위원장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교리(nuclear doctrine) 변화를 시사한 부분인데, 어떤 세력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할 때 “둘째 사명”을 결행하겠다고 밝힘.
 - 이번 연설을 통해 이익을 침탈당하는 특정 상황에서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임.
 - 공세적 핵교리로의 변화는 핵무기 다종화에 따른 자신감의 측면도 있지만, 실제 능력과 현실의 괴리, 미국과 한국의 전력 증강에 대한 조바심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적 차원의 대응으로 읽을 수도 있음.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l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ld=1550435>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

(김호홍, 『이슈브리프』, 344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4.01.)

-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의 도전이라는 인식하에 대응함.
 - 북한은 과거에도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었으나, 이번과 같이 장기간 국경폐쇄를 하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며 대응한 사례는 처음임.
 - 북한은 2020년 1월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 오고 있음.

- 북한은 최근 들어 일부 교류 재개 등 방역정책을 변화 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통제위주의 방역으로부터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방역예산을 전년대비 33.3% 증액함.
 -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남. 실내 행사 참석이 대부분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경제·민생 현장 방문이 두드러졌으며, 평양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증가함.
 - 연초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으로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2월에는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2년차인 2022년에 접어들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국경 봉쇄를 비롯한 ‘철저한 방역’의 원칙은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예상 ▲대외 교류의 단계적 재개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점차 방역정책을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 ▲외부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장비·약품 등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자체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로서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러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 마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61&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ld

■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개연적 추론

(임송·조태형, 『BOK 이슈노트』, 제2022-15호, 한국은행, 2022.03.30.)

- 지난해 9월경 북한당국이 ‘중앙은행 돈표’를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국내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돈표는 북한 최초의 임시통화임. 1948년 9월 정권수립 이래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임시통화를 발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역급감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생산과 주민들의 수요가 모두 부진함에 따라 국가예산납입 및 자금상환을 통한 현금회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현금유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금을 발행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무현금결제수단인 돈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로 물가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음.

- 돈표가 현금과 구분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회수가 용이한 점, 저렴한 국내산 재료로 돈표를 발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임.
- 중앙은행 돈표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당초의 현금유통 애로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발행규모를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주민들의 돈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원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40/view.do?nttlId=10069729&menuNo=200092&pageIndex=1>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31.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홍용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pp. 189-226
3.31.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박명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1호, pp. 331-377
3.31.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조봉현·송재국·정일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pp. 89-122
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분석과 전망: 러시아의 인식, 목표, 전략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360&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4.4.	[EAI 우크라이나 이슈브리핑] ③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러 관계발전 전망	백주현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190&board=kor_issuebriefing
4.4.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2&seq=6440
4.5.	한국의 쿼드 참여 시 고려사항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1&depth=2&lang=kr
4.6.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저위력 핵무기 동향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2&depth=2&lang=kr
4.7.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3&depth=2&lang=kr
4.11.	신냉전적 전략구도의 형성과 한반도 군사안보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4&depth=2&lang=kr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4.14.	2021년 김정은 연설 분석과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김호홍·김진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lId=410364&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d
4.14.	일본 '핵공유'론의 배경, 주요 내용 및 전망	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5&depth=2&lang=kr
4.18.	'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대북제재 논란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71&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18.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최용환·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73&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19.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북중 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종민·김민정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40/view.do?nttlId=10070109&menuNo=200092&pageIndex=1
4.20.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정책의 과제	김원식·김종원·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75&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22.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김정섭	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eb/boad/1/egoread.php?bd=3&seq=6485
4.22.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6&depth=2&lang=kr
4.25.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79&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25.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의도와 파급 영향	이지선·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80&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26.	북한-러시아 공생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67&depth=2&lang=kr
4.27.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의 특징과 시사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lId=410381&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4.29.	북한의 신작 영화 <하루낮 하루밤>의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이지순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50438
4.29.	북한의 재정 추이와 주요 이슈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제4호, pp. 3-28

2. 미국

■ North Korea Looks to Capitalize on Washington's Attention Deficit (Anthony Ruggiero, *The Dispatch*, 2022.4.1.)

-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미국 정책의 변곡점이 되어야 함.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김 위원장의 무기 프로그램과 강탈(extortion) 노력을 약화시켜야 함.
-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다른 군사 능력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있음.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순항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함
 - 현 행정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초석으로 고위급 외교 참여를 수용한 2018년부터 대북 압력이 위축되기 시작함.
-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징벌이며, 제재는 잠정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은 외교적 연합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체제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음.
- 미국은 재정 압박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해외 제재 단속 및 조달 네트워크 방해, 불법적인 에너지 무역 단속이라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신속하게 집중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하기보다는 김 위원장이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제재와 같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야 함.
 - 먼저 미 재무부는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에 북한 무역이나 제재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함.
 - 또한 미 재무부나 법무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을 식별했다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임.
 - 다음 타깃은 북한의 외교·재정·상업 대표단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에 불법 조달에 관여한 기관의 대표자 추방을 요구하는 유엔 제재 이행을 주장해야 함.
 - 최종 목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이력임.

- 또한 미 상·하원 외교 및 금융 위원회는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압박 감소와 의무적 제재 시행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감독청문회를 열어야 함.
- ICBM 시험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진화하는 미사일과 핵 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다행히도 청사진은 있으나,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시행할 수 있느냐임.

※ 원문 <https://thedispatch.com/p/north-korea-looks-to-capitalize-on?s=r>

■ The U.S. Needs a Strong Response to North Korea's ICBM Launch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2022.4.6.)

- 김정은 위원장은 표면상 민간 위성 발사로 위장하기보다 ICBM 발사를 강조함으로써 제재 완화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한 협상을 포함하여 가까운 미래의 외교적 대화를 분명히 포기한 것임.
 - 북한이 반복적으로 선언했듯이 협상에 복귀하려면 미국의 양보가 필요함.
-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 실패로 인해 또 다른 시도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시기가 빨랐음.
 - 따라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 수 있음.
 - 김 위원장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징벌적 조치를 거부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수 있음.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 11개를 다시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 다른 규탄 성명과 제재 강화를 촉구함.
 -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에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지금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다른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수 있고 또 주도해야 함.
 - 첫째, 미국 법률을 완전히 시행해야 함. 수년 동안 미국은 다음 도발을 감행할 때까지 위반 증거가 있는 북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보류해 옴.
 - 둘째, 미국 본토의 전략적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함. 잠재적으로 북한 ICBM 전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에 문제가 생김.

- 셋째,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함.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의 사드 체계 강화를 위해 팜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넷째, 한반도에서 연합군 훈련을 재개해야 함. 한미는 지난 4년간 군사훈련을 취소·축소·제약함으로써 동맹국의 역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킴. 한미 훈련 수준을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임시 배치를 재개해야 함.
-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의 범법 행위에 대응하여 동맹국의 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함.

※ 원문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the-us-needs-strong-response-north-koreas-icbm-launch>

■ What Can Be Done about North Korea?

(John Fairlamb, *The Hill*, 2022.4.13.)

- 미국과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시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능력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고립되는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내는 이유는 북한 지도부의 1차적 목표가 체제 생존 보장이며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
-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체제 보장에 대한 유일한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봄.
- 바이든 행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시도할 것이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응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 한미 양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할 의사가 없으며, 한미의 재래식 군사능력이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 북한 또한 남한을 침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외교문제는 항상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나, 미국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의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상기하기 위해 미국의 핵 억제 정책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외교적 노력과 핵 억지력 모두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으며 만일을 대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미·일 3국으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
 -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수십 년간 한일 정부와의 방어를 계획해 왔으며, 작전 계획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
- 한·일 정부는 미국과 공동 생산 혹은 구입한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양국에 상당한 미사일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있음.
 -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개발에 1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예산을 기부하고 사실상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무장한 자국의 이지스함을 구입 등 미국과 주요 국제 파트너로 자리를 잡음.
 - 한국은 상당한 레이더와 단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있음.
 - 효과적인 통합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 자산을 연결하여 최소한의 더 나은 공유 조기 경고, 단일 통합 공중 사진, 목표와 교전 통제의 해제를 위한 상호 연결 및 통신 제어가 포함됨.
 - 상호 연결성은 이지스 시스템을 통과하는 미사일에 대한 사전 통지와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이 중 일부는 현재 미국을 허브로 두고 한·일 양국이 각각 협조하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3자 협력의 추진을 저해하고 협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음.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최선의 대응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3자 협력을 개선하는 것임.

※ 원문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3265960-what-can-be-done-about-north-korea/>

■ Thin Soup From a Bare Cupboard: The Latest Sanctions on North Korea (Joseph Dethomas, *38 North*, 2022.4.19.)

-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 군수사업부 산하 로켓 사업부(the Ministry of Rocket Industry)와 함장강무역공사, 한국운산무역공사, 승리산무역공사, 운천무역공사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
 -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북한 정부 소유 기관이며, 미사일 기술 획득보다는 유엔 제재로 금지된 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에 더욱 이용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기업들이 사실상 제재로 통제가 가능한 금융 채널을 이용했는지, 압류된 자산이 있는지 등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음.
- 몇 주 전에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기업 3곳과 개인을 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하면서, 그동안 실재적 성과가 없던 유엔 대북 제재 강화도 동시에 요청한 바 있음.
- 북한의 도발에 비해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다소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중 긴장의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최선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정세와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제재 관련 담당자들은 북한의 비확산 도발에 대응하여 취할 합법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지정(designation)’을 “저장(save up)”해둬.
 - 제재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의 다양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처럼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 정부 각급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 북한 문제에 쓸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음.
 - 현재 북한 문제를 ‘지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제재를 피하려 북한의 노력을 때때마다 노출하는 행위는 필수임.
-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고려할 때 성급한 대응은 아니나, 대북제재 정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묻히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임.
 -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이 널리 공유되는 국제규범과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국제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시대는 끝남.
 -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많은 제재 회피 노선에의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고 미국이 러시아를 통해 마주할 훨씬 더 강력한 핵과 미사일로 인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점차 멀어질 것이므로, 대북정책은 그러한 큰 우려의 틀 속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함.
- 제재는 가까운 미래에 다른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거대한 한 세력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가 될 것임.
 -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국제체제를 파괴할 매우 강력한 안보 동기가 될 것임.

-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산만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음.
- 국제질서의 위기는 북한 문제를 마주하는 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또는 선호하는 외교적 방식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대북 협상 견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임.
 -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함.
 - 냉전은 북한 핵 개발의 시작을 일으켰고, 새로운 국제질서는 북한의 발전을 북돋음.
 -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이 새로운 전략관을 짚 동안 북한과 그 동맹국이 가진 시간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것이, 세계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소용돌이임.

※ 원문 <https://www.38north.org/2022/04/thin-soup-from-a-bare-cupboard-the-latest-sanctions-on-north-korea/>

■ North Korean Hackers Stole \$620 Million Worth of Cryptocurrency, FBI Finds

(Trevor Logan,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FDD)*, 2022.4.20.)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4일 북한 해킹그룹인 라자루스(Lazarus)가 6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 이에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훔친 자금을 은닉한 디지털 지갑을 제재함.
 - 그러나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해커가 자금을 북한 정권으로 다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향후 도난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임.
- 북한 해커들은 김정은 정권 지원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오랜 역사가 있음.
 -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평가함.
 - 북한 해커들은 디지털 지갑이 전통적인 은행 계좌보다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디지털 통화 교환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보다 덜 엄격한 규정과 보안 절차로 인해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고 있음.
- 지난 18개월 동안 사이버 정책 논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러시아 내부에 숨어 있는 랜섬웨어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킬 위협이 되고 있음.

- 도난당한 자금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및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거래 및 계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해야 함.
 - 고객 정보와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기존 은행 규정을 광범위하게 채택한다면 해커가 개별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제재를 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디지털 지갑에 대한 다단계 인증과 같은 제어가 있다면 도난 시도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장벽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는 도난의 규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원문 <https://www.fdd.org/analysis/2022/04/20/north-korean-hackers-stole-620-million/>

■ North Korea's Missile Message

(Katrin Fraser Katz and Victor Cha, *Foreign Affairs*, 2022.4.29.)

-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자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를 감지하고 극초음속·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
 - 김 위원장이 미국의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함.
-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은 중국을 최우선 도전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부차적이지만 우선순위로 정함.
 - 중국, 러시아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미국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에서 다른 여지를 남겨야 함.
 - 북한은 핵 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정점에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미국 주도 동맹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임.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재 북한은 미국의 방어망 격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몇 번의 실험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임.
- 푸틴 대통령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뒤엎는 것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을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높임.
 - 첫째, 냉전 말기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침공에 훨씬 더 취약해질 것임.

- 둘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을 하려는 나토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 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음.
- 셋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점을 얻는다면, 이는 한국의 시설이나 군대와 같은 작은 목표물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강화시킬 것임.
-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외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름.
 -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기술적 이정표 달성을 위해 적어도 2022년 남은 기간에는 협상을 계속 피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탐지해 파괴할 포괄적인 대미사일 전략을 활성화해야 함.
 - 센서, 정보·감시 기술, 고급 지휘·제어 인프라, 지역 동맹국들이 북한의 기술 발전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기타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동맹국들이 추가적인 방어 무기와 요격 시스템 배치를 갖추는데 투자해야 함.
 - 미국은 한국이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및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유사한 정사정포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 마지막으로 북한이 무반응을 해도 미국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계속 모색해야 함.
 -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용주의가 필요함.

※ 원문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22-04-29/north-koreas-missile-message>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1.	North Korea's Latest Launch Signals Impending Spiral	Eric Gomez	<i>The Diplomat</i>	https://thediplomat.com/2022/04/north-koreas-latest-launch-signals-impending-spiral/
04.04.	How Washington and Seoul Can Get on the Same Page to Deter North Korea	Toby Dalton	<i>War on the Rocks</i>	https://warontherocks.com/2022/04/how-washington-and-seoul-can-get-on-the-same-page-to-deter-north-korea/
04.05.	New UN Report Details North Korea's Sanctions Violations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ew-un-report-details-north-koreas-sanctions-violations-201661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8.	Failure to Launch: Why America Can't Stop North Korean Missile Tests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failure-launch-why-america-can%E2%80%99t-stop-north-korean-missile-tests-201730
04.11.	Day of the Sun: North Korea to Celebrate Kim Il-sung's 110th Birthday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ay-sun-north-korea-celebrate-kim-il-sung%E2%80%99s-110th-birthday-201761
04.15.	How Global Is the North Korean Economy?	Benjamin Katzeff Silberstein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2/04/how-global-is-the-north-korean-economy/
04.19.	Coming Soon: North Korean Tactical Nuclear Weapons?	Joshua Zitser	<i>1945</i>	https://www.19fortyfive.com/2022/04/coming-soon-north-korean-tactical-nuclear-weapons/
04.20.	How Will President-Elect Yoon Manage The South Korea - U.S. Alliance And North Korea?	David Maxwell	<i>1945</i>	https://www.19fortyfive.com/2022/04/how-will-president-elect-yoon-manage-the-south-korea-u-s-alliance-and-north-korea/
04.23.	U.S. Hasn't Stopped N. Korean Gang from Laundering Its Crypto Haul	Tory Newmyer and Jeremy B. Merrill	<i>The Washington Post</i>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2/04/23/north-korea-hack-crypto-access/
04.25.	Happy Holidays: North Korea's Latest Military Parade Is Finally Underway	Stephen Silver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appy-holidays-north-korea%E2%80%99s-latest-military-parade-finally-underway-202013
04.27.	Revisiting the Hwasong-17/15 Controversy: What if North Korea Had Launched a Hwasong-15?	Vann H. Van Diepen	<i>38 North</i>	https://www.38north.org/2022/04/revisiting-the-hwasong-17-15-controversy-what-if-north-korea-had-launched-a-hwasong-15/
04.27.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Here To Stay	Ankit Panda	<i>1945</i>	https://www.19fortyfive.com/2022/04/north-koreas-nuclear-weapons-are-here-to-stay/
04.29.	The Burgeoning North Korea Missile Threat	Victor Cha and Katrin Fraser Katz	CSIS	https://www.csis.org/analysis/burgeoning-north-korea-missile-threat

3. 중국

■ 윤석열,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류텐충, 『세계지식』, 2022년 NO.7.)

(刘天聪, “尹锡悦将采取何种内外政策,” 『世界知识』, 2022年 第7期)

-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내 문제 해결이 시급
 -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가 부진했고, 특히 심각한 취업난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하락
 - 두 대선 후보의 근소한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볼 때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
 -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민주당은 172석을 점유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110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적어도 2년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될 것임.
 - 한국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는 바로 경제 발전 추진·취업난 해결과 공정한 사회 구축·국민 대통합을 실현하는 것임.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국민 행복과 공정 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현재로써는 코로나 관련 지원 계획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 계획을 세워 기업,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 산업 분야에서 ‘융합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실현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했고 임기 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여 ‘원전 최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무역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며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반도체/배터리/친환경/디지털/정보통신기술 등) 클러스터를 구축 예정임. 이밖에도 문화, 금융, 게임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분야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실시함과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함.
 - 취업 및 사회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이·성별·학력 차별 없는 열린 채용을 추구하며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함.

- 친미반중, 대북강경책, 더 강한 한미동맹 강조 등은 한국 보수 세력이 기본적으로 고수하는 외교 정책 및 안보관임.

-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 온 외교의 기본 틀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한미 동맹을 대외 정책의 전략 기조로 삼을 것임. 윤석열 당선인은 『포린어페어즈 (Foreign Affairs)』에 글로벌 외교안보비전을 기고하면서 ‘더 깊고 강력한 동맹’을 역설함.
 -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적 저자세’라고 비난하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비핵·변영의 한반도 실현’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한국 정부는 경제원조, 협력 사업 및 공동 경제 발전 계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답습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
 - 한일 관계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정상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및 독도 관련 영토 문제 등 현안이 남아있기에 단기간 내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한·중 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책을 비판하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고 ‘굴욕적인 대중 외교’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
 -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국민의 반중 정서에 의도적으로 영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한중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함. 윤석열 후보 측 김성한 외교안보정책 본부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미, 한중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한미는 동맹 관계이고 한중은 파트너 관계이다.”라고 하면서 ‘양자택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하고 미국 대사대리보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먼저 접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

※ 원문 <http://www.cicir.ac.cn/NEW/opinion.html?id=e434a2c0-9478-4ce6-b1fc-54785e5125da>

■ 긴장 고조 속 남북 정상 친서 교환, 그 의미는?

(라오친, 『해방일보』, 2022.4.22.)

(廖勤, “局势紧张之际, 朝韩领导人互致亲笔信有何意味?” 『解放日报』, 2022.4.22.)

-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은 21일 답신했음.
 -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고,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김정은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도 남북 정상의 친서에 대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평가함.
 -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함. 이를 시작으로 남북 정상은 수시로 친서를 교환했지만 2020년 6월, 북한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친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짐.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남다른 의미를 지님.
 - 현재, 한국과 미국은 군사 및 외교 측면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실시되는 한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경한 태도로 해석되며 한미 강력한 연합억지력 유지를 위한 행보로 보임.
 - 북한은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속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힘. 이번 시험발사는 4월 1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응·압박하는 성격으로 풀이됨. 북한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됨. 2021년 7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별 진전은 없었음. 지난 3월 24일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반도 정세는 또 한 번 긴장 국면에 돌입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긴장 국면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2018년에 체결한 남북 간 공동선언이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는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서 이룬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됨.

-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든 상황
 - 윤석열 당선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굴종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배치를 거론하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부터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바로 북한과 접촉 및 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북한이 친서를 공개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며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둘 것”이란 입장이지만, “북한은 새 정부에 ‘평화 세력이라면 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북한의 친서 공개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할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렸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만약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함.

※ 원문 <https://www.jfdaily.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476285&sid=300>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2 NO.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보는 미중 관계 50년 〈美国国家安全战略视阈下的 中美关系50年〉	다웨이 (达巍) 차이홍위 (蔡泓宇)	국제안전연구 (国际安全研究)	https://mall.cnki.net/magazine/article/GGXB202202001.htm
2022 NO.3	국제기구 및 중국의 대주변국 외교 〈周边国际组织与中国的周边外交〉	장구이홍 (张贵洪) 위자오 (余姣)	우한과기대학보 (武汉科技大学学报)	http://lib.cqvip.com/Qikan/Article/Detail?id=7106839982
4.6.	냉전적 사고, 아시아에서의 부활을 막아야 〈不能允许冷战思维 在亚洲地区回潮〉	-	인민일보해외판 (人民日报海外版)	http://paper.people.com.cn/rmrhwb/html/2022-04/06/content_25910978.htm
4.8.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东亚可持续安全缘何面临威胁〉	류장웅 (刘江永)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W2GcrlN9c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4.13	윤석열, 박근혜를 급하게 방문한 이유는? 〈布局?尹锡悦为何着急拜访朴槿惠?〉	루이페이 (陆依斐)	해방일보 (解放日报)	https://www.jfdaily.com/statistics/res/html/web/newsDetail.html?id=472301&sid=300
4.18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즈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朝鲜建军90周年节点将至,美韩举行年度军演,半岛局势引关注布局?〉	안정 (安峥)	해방일보 (解放日报)	https://www.jfdaily.com/statistics/res/html/web/newsDetail.html?id=474507&sid=300
4.21	아태지역, 대국들의 바둑판이 아니다 〈亚太不是大国博弈的“棋盘”〉	바오즈펑 (鲍志鹏)	북경일보 (北京日报)	http://bj.bjd.com.cn/5b165687a010550e5ddc0e6a/contentShare/5b16573ae4b02a9fe2d558fb/AP626140bae4b01d2ae395ce6a.html

4. 일본

■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한 주요논점

(동북아시아정세연구회, 나카소넨평화재단, 2022.3.)

(北東アジア情勢研究会, 『朝鮮半島情勢展望のための主な論点』, 中曽根平和研究所, 2022.3.)

- 북한이 현재 가장 주력하는 것은 ‘의식주’ 충족
 - 1만세대 주택건설, 학생들에게 교복제공 등의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제2의 농촌문제테제’라고도 불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또한 식량문제에 관한 내용
 - 최근 방영된 기록영화를 보면 2021년 ‘예비랑곡을 여러번 해제’했어야 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나, 1990년대 초 고난의 행군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여전히 국가사업의 제1순위는 비상방역사업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없는 한 북한이 대외교류를 활성화할지는 미지수
 -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자립적 발전의 토대 만드는 ‘정비·보강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군사적 측면에서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핵·미사일 기술 향상을 위한 실험을 지속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은 반대하였으나, 미사일 개발에는 관용적 태도를 취함.
 - 미국과 중·러 대결구도의 심화, 즉 ‘신냉전체제’를 북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북한은 중·러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약화를 꾀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미대립의 장기화를 시사
 -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은 당분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국제정세의 추이를 지켜보며 체제와 국방력강화에 주력할 것임.
-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찾아볼 수 있었음.
 - 특히, 안보문제에서 한·미·일협력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한일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동북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여 중·북·러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함.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재검토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으나, 경제안보차원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과거 한·일 양국이 제3국 자원개발에서 협력한 것과 같이 협력관계를 재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 재구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원문 https://www.npi.or.jp/research/data/npi_policy_northeastasia_20220331.pdf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

(미무라 미츠히로, 『ERINA Report Plus』 No. 165, 2022.4.)

(三村光弘, 『ERINA Report Plus』 No. 165, 2022.4.)

- 2021년 말 개최된 제8기 4차 당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보고에서 눈에 띄는 점들은 아래와 같음.
 - 주택 및 도시 건설 부문의 성과가 눈에 띄며¹⁾, 전력과 석탄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내각중심제 하에 간부들의 성과가 개선된 것을 강조하며 내각제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킬 의지를 내보임.
 -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석탄공업과 철도운송에 대한 언급이 후순위로 미루어짐.
 -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한 것을 보면, 2022년도에도 북중국경의 본격적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단순히 외국문화의 유입에 관한 것이 아닌, 당과 국가기관, 국영기업 등의 법·제도·규칙 준수와도 연관
 -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법질서의 강화’를 여전히 강조
-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는 1964년 발표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기반하여, 현 정세에 맞는 새로운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김정은 위원장은 ‘문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 본 보고에서도 도농격차 감소라는 목표, 도시의 발전을 농촌으로 보급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 도농격차는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넓은 범위에서 존재하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걸친 국가(당)의 개입이 필요

1) 저자는 본문에서 송신·송화지구의 건설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4월 12일 노동신문에 완공이 보도되었음.

- 식생활을 쌀과 밀가루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쌀과 옥수수 중심이었던 김일성 시대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빵, 면 등의 식생활이 퍼져나간 것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밀가루가 주요 작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봄.
- 농업간부 및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 제고도 강조하는데, 이는 최근 현장과 가까운 당 조직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내용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 그러나 8차 당대회 이후 결정서 초안 작성, 최종심의 의견 반영, 회의 채택이라는 흐름을 보도하여 당내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결정서 내용이 실현된다면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내각중심제적 경제관리체제의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실질적으로 일하는 간부’,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 문화’가 경제 재건에 중요하다는 것을 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원문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2/04/se16550_tssc.pdf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4.5.	북한과의 교섭을 14년간 담당한 전 외교관의 증언 - ‘북한외교 회고록’ 저자 야마모토 에이지 인터뷰 〈北朝鮮との交渉を14年間担った元外交官の証言 - 『北朝鮮外交回顧録』 著者・山本栄二氏に聞く〉	후쿠다 케이스케 (福田恵介)	동양경제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578532
4.8.	결국 신형ICBM 발사에 돌입한 북한 〈ついに新型ICBM発射に踏み切った北朝鮮〉	후쿠다 준이치 (福田潤一)	국제정세 네트워크분석 (国際情報 ネットワーク分析)	https://www.spf.org/iina/articles/fukuda_06.html
4.11.	일본이 모르는 한미관계의 팩트풀니스 〈日本が知らない米韓関係のファクトフルネス〉	이토 코타로 (伊藤弘太郎)	국제정세 네트워크분석 (国際情報 ネットワーク分析)	https://www.spf.org/iina/articles/ito_10.html

5. 러시아

■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북핵 문제는 시의적인 사안인가(Как дела в Корее: актуальна 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Valdai Discussion Club, 2022.04.06.)

-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호가 발사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이 공식적으로 폐기됨.
 - 이에 더해 연변 핵 시설이 재활성화되고, 김정은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에 건설 활동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이 외에도 북한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구경 다련장포, 철도기동 미사일체계와 같은 일련의 새로운 군사 무기를 선보였음.
- 이러한 행보에는 신무기 실험이란 군사기술적인 이유에 더해 정치적 이유도 존재함.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지 1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새 행정부한테 언제든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기존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졌으며, 동시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폐기로 인해 새로운 제재 압박이 예상됨.
 - 김정은은 지난 10년간 제1세계 ‘선진’국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올림픽 해빙”과 미·중·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한 대외관계의 확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전략적 중단으로 변모했던 해빙 국면은 올해 들어 끝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연유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전형적인 “긴장 고조” 전술을 활용해 한반도 문제의 무력 해결이 불가능하단 점을 상대국들에게 인지시키려 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더 격화하고 중국이 “비우호적”인 방식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한반도 문제가 관심 밖에 놓이는 가상의 경우에서도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은 분석의 대상이 되기보단 공상의 영역에 남을 것임.
- 대북제재가 거론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에 관한 물음도 제기됨.
 - 북한 경제가 경제제재의 여파와 감염병에 대응한 국경폐쇄 조치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 있긴 했지만, 불가피한 기근이 발생했다는 상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북한은 2018년부터 이어진 경제발전 집중 노선과 함께 일련의 이념적 일체성 강화 조치들을 통해 사실상의 봉쇄 속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식량 및 이데올로기적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도 조금씩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세계로부터의 격리”가 얼마나 유지될 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주변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천천히 해제될 것임.

- 이처럼 북핵 문제는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통적인 세계질서에 타격을 가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 가능성 언급은 러시아의 특별군사 작전 실시 결정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음.
 -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제재를 표결함에 있어 이전과 같은 의견의 합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 한편, 한국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남.
 - 3월 9일 한국에선 유례없는 흑색선전과 사회적 분열로 점철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보수 세력의 후보인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 전직 검사로 유명한 윤석열은 전형적인 보수 정치인도 전문 정치인도 아니지만, 대중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의 사용을 거부하는 등 국내정치적인 질서를 회복하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음.
 - 대외정책의 경우 윤석열은 분명 “힘을 통한 평화의 달성”을 믿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엔 더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일본엔 덜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보수주의자의 시각을 견지함.
-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전대인 문재인 정부가 유산으로 남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흥미로운 관찰점임.
 - 한국에는 현재 일본에 버금가는 낮은 출산율과 감염병에서부터 부동산 시장 위기 및 국가통합 보장 등을 아우르는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 나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분열, 2024년까지 유지될 여소야대 국회, 당내 통합성 강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요컨대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흥미로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음.
 -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엔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사일 축포”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1일 치러질 한국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쟁의 단계가 펼쳐질 것임.

※ 원문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kak-dela-v-koree/>

■ **새 대통령과 새로운 대립으로(С но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 к нов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예카테리나 볼린스카야, 네자비시마야 가제타(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22.04.11.)

- 최근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 지도부의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수사가 강경해졌음.
 - 윤석열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 미국과 중국의 강한 비판을 촉발한 적 있으며, 대선운동 중엔 THAAD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뤄진 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축소된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계획이라 밝혔음.
 - 4월 6일 진행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대표단과 제이크 설리번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에선 THAAD 구입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지진 않았지만, 핵 폭격기,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 재배치가 논의됨.
 -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시도를 근거로 미국의 안보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윤석열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활용해 동맹국을 보호할 의무를 상정하는 “확장 억제”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 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4월 6일 회담 이후 자국 병력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는 대신 동맹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히고, 북한에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함.
 -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예정된 QUAD 회담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 억제 정책을 논의하길 원하지만, 긴장이 고조된 현재에도 미국의 절제된 수사에 변함이 없고 역내 국가들의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의 목표들은 달성되기 어려워 보임.
 -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지원 축소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미국과 중국의 협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일련의 대북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의 시도를 방해하고 있음.
- 윤석열의 취임 이후 남북한 관계는 더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윤석열의 공격적인 수사뿐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 중단 선언 폐기를 고려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와 관련하기도 함.
 - 윤석열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확장된 억제”와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도 함께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 억제를 지원하고 연합 훈련을 진행할 준비는 됐지만, 핵무기 재배치 또는 확장된 억제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중임.

- 주요 행위자들이 현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쁜 상황에서, 가혹한 대응이 이어지지 않을 것을 인지한 북한은 이를 핵실험 재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윤석열의 수사는 오직 북한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수사가 바뀌기 전까지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임.

※ 원문 https://nvo.ng.ru/gpolit/2022-04-11/100_nvo11042022.html

■ **“긴장 심화는 미국의 파괴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말하다(«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 результат деструктивной политики США»: Секретар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Николай Патрушев — о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 2022.04.06.)**

- 이번 주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 대한 대응임.
- 한국은 오랫동안 남북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러한 사려 깊은 노선에 만족하지 못한 미국이 한국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함에 따라 그 영향이 한국 국방부 지휘부의 발언에 투영됨.
 -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심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 보장 노력을 해치려는 미국의 파괴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임.
 - 아태지역의 지역 안보 구조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행보는 4자 안보 대화와 AUKUS와 같은 동맹의 형성을 통한 새로운 ‘분리선’의 형성, 역내 동맹국들의 신무기 도입 가속,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심화, 항행의 자유 보장을 빙자한 도발 및 분리주의 성향 자극 등으로 나타남.
- 주권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국가적 자주성이 있었더라면 한반도 문제 관리의 진전에 도움이 됐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종속은 각국의 최우선 목표 실현을 방해하고 있음.
 - 단언컨대 역내의 장기적인 평화는 미국의 압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국의 도발과 파괴적인 행보는 오직 불안정만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님.

※ 원문 <https://www.kommersant.ru/doc/5294892>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1.	닉슨 미 대통령의 광 독트린과 1970년대 한반도에서의 국제관계 (Guamская доктрин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Р. Никсон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начале 70-х годов XX В.)	이리나 란초바 (Ирина Ланцова)	Переломные моменты истории: люди, событ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К 3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22. 230-235.	https://www.elibrary.ru/download/elibrary_48195580_36780221.pdf
04.03.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의 주기가 도래하는 중이다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грядет новый виток напряженности)	올레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2/04/03/nakorejskom-poluostrove-griadet-novyj-vitok-napriazhennosti.html
04.05.	아시아의 화약통. 한국에서 다시 핵전쟁을 거론해 (Пороховая бочка Азии. В Корее опять заговорили о ядерной войне)	흐렘 이바노프 (Глеб Иванов)	아르구멘티이팩티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https://aif.ru/politics/world/porohovaya_bochka_azii_v_koree_opyat_zagovorili_o_yadernoy_voynе
04.05.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인정해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пуст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ядерного удара по Южной)	다닐라 모이세예프 (Данила Моисеев)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www.ng.ru/world/2022-04-05/1_6_8409_korea.html
04.05.	미사일과 핵무기의 두 한국 (Две Кореи — ракетная и ядерная)	세르게이 스트로칸 (Сергей Строкань)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	https://www.kommersant.ru/doc/5294319
04.08.	한반도: 대립으로의 회귀?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ворот к конфронтации?)	올레그 다비도프 (Олег Давыдов)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ИМЭМО)	https://www.imemo.ru/publications/relevant-comments/text/koreyskiy-pluostrov-povot-k-konfrontatsii
04.11.	매우 현실적인: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의심받아 (Бомбически реально: КНДР подозревают в подготовке к ядерному испытанию)	나탈리아 포르타코바 (Наталья Портякова)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https://iz.ru/1317558/nataliia-portiakova/bombicheski-realno-kndr-podozrevaiut-v-podgotovke-k-iadernomu-ispytaniuu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15.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 김일성은 어떻게 불멸의 지도자가 되었나 (Вечно Восходящее Солнце. Как Ким Ир Сен стал посмерт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КНДР)	올레그 게르치코프 (Олег Герчиков)	아르구멘티이팍티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https://aif.ru/society/history/vechno_voshodyashchee_solnce_kak_kim_ir_sen_stal_posmertnym_prezidentom_kndr
04.20.	북한이 미국을 실험하다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спытывает Америку)	세르게이 스트로칸 (Сергей Строкань)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	https://www.kommersant.ru/doc/5317724
04.24.	스탈린은 거짓말을 했고, 한반도에선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중국의 “의용군들”이 자국을 구했음에 대해 침묵하다 (Сталин схитрил, воевать в Корею пришлось Пекину. КНДР умалчивает о том, что ее спасли китайские “добровольцы”)	블라디미르 스코시레프 (Владимир Скосырев)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www.ng.ru/world/2022-04-24/6_8425_korea.html
04.26.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이 갈등을 잊도록 도울 것이다 (Ракеты КНДР помогут Токио и Сеулу забыть о разногласиях)	다닐라 모이세예프 (Данила Моисеев)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www.ng.ru/world/2022-04-26/6_8427_korea.html
04.28.	미사일의 정보들: 군사전문가 드미트리 코르네프가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에 대해 말하다 (Ракетные данные: Военный эксперт Дмитрий Корнев — о новых вооружениях,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КНДР на параде в Пхеньяне)	드미트리 코르네프 (Дмитрий Корнев)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https://iz.ru/1327293/dmitrii-kornev/raketnye-dannye
04.28.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에 북한이 합류하는가? (К сближению Москвы и Пекина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Пхеньян?)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Владимир Павленко)	regnum.ru	https://regnum.ru/news/polit/3577904.html

Ⅲ

북한 동향

1. 주요 일지(4.1.~4.30.)

일자	대내	대남·대외
4.0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4/29, 청춘거리 농구경기관) 	
4.02.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 현장 정치사업 및 경제선동 -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등 	
4.03.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경루동 보통강강안 다락식 주택 방문 김덕훈(내각 총리), 평양북도·황해북도 여러 사업 현지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남] 박정천(당 비서) 담화(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치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 [대남] 김여정(당 부부장) 담화(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유엔인권이사회 인권결의 채택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진정한 인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
4.04.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룡해(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평안남도 평원군 여러 단위 현지요해 	
4.05.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남] 김여정(당 부부장) 담화(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4.06.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 중앙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 중앙사진전 개막(인민문화궁전)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4.0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 전국미술축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국가미술 전람회 개막 	
4.08.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최고지도자 추대 10주년 관련]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 청년학생들 웅변모임 진행(청년중앙회관)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 연구토론회 각 도에서 진행 - 우표전시회 개막 - 만경대상 전국 무도선수권대회 개막(태권도전당) - 제25차 태양절 요리축전(평양면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쭝가노브) 축전

일자	대내	대남·대외
4.10.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최고지도자 추대 10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최룡해(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보고 - 축전채택모임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에서 진행 - 기념우표 발행 -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에서 진행 - 사진전람회 각 도들에서 진행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동평양대극장)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4.1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서전람회 개막(옥류전시관) - 영화상영주간 개막(평양국제영화회관) 전국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기술혁신성과 전시회 (~4/30, 직맹 중앙위원회 주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의 러시아 인권이사회 성원국 자격정지 관련 외무상 담화(조선중앙통신) - “유엔과 국제기구는 미국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함부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위협공갈하는 수단으로 다시는 도용되지 말아야 할 것”
4.1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업근로자들 웅변모임 진행(황해북도예술극장) 	
4.13.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주화 발행 -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 - 전국 직맹일꾼·직맹원 웅변대회 진행(중앙노동자회관) - 농업근로자·농근맹 맹세모임 진행(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대통령(후렐수흐) 축전
4.14.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원(당중앙위 조직부서) 준공사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만경대학명학원) - 웅변모임 진행(인민문화궁전) - 조명축전(~4/17, 평양) 	
4.15.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11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 참석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일성 110회 생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 진행(김일성광장) 	
4.17.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 김정식(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독립 76주년 관련
4.18.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동평양대극장) 	

일자	대내	대남·대외
4.19.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훈(내각 총리),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요해 	
4.20.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훈(내각 총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바 주석(미겔 디아스 카넬) 생일 [김정은 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바사르 알 아사드) 태양절 축전 관련
4.2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대통령 친서 관련 회답친서 전송
4.2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근맹 일꾼·농근맹원 결의모임 진행 	
4.24.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훈(내각 총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북창화력 발전연합기업소·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요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 북러정상회담 3주년 관련 '조러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 글 게재 (외무성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벗이며 친선적인 이웃인 러시아와의 친선 협조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 ... 오늘 조러관계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이익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
4.25.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참석(김일성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병식 후 경축행사에 참가한 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 치하(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김정은 공개활동]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 	
4.27.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과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가 	
4.28.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조중국제상품전람회(~6/28, 온라인) 	
4.29.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차 전국과학기술축전(~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과학기술선행과 혁신 	
4.30.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관련 군 지휘성원 치하(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2. 북한 매체 주요 보도

〈대내〉

■ 김일성 110회 생일 경축 행사 개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청춘거리 농구경기관) (4/1~4/29)
- 중앙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4/6)
- 중앙사진전 개막(인민문화궁전) (4/6)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4/6)
-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만수대의사당) (4/7)
- 전국미술축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국가미술전람회 개막 (4/7)
- 연구토론회 각 도에서 진행 (4/8)
- 우표전시회 개막 (4/8)
- 만경대상 전국 무도선수권대회 개막(태권도전당) (4/8)
- 제25차 태양절 요리축전(평양면옥) (4/8)
-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동평양대극장) (4/10)
- 국가도서전람회 개막(옥류전시관) (4/10)
- 영화상영주간 개막(평양국제영화회관) (4/10)
- 기념주화 발행 (4/13)
-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 (4/13)
- 전국 직맹일꾼·직맹원 응변대회 진행(중앙노동자회관) (4/13)
- 농업근로자·농근맹 맹세모임 진행(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4/13)
-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만경대혁명학원) (4/14)
- 응변모임 진행(인민문화궁전) (4/14)
- 조명축전(평양) (4/14~4/17)
-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 진행(김일성광장) (4/15)

■ 김정은 최고지도자 추대 10주년 행사 개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4/8)
- 청년학생들 응변모임 진행(청년중앙회관) (4/8)
-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4/10)
 - 노동신문 4월 11일 1~2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추대된지 10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중앙보고대회와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보도함.

- 보고회에는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 등이 참석하였고, 최룡해는 보고에서 “당을 필승불패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지닌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령도사에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함.
- 축전채택모임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에서 진행 (4/10)
- 기념우표 발행 (4/10)
-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에서 진행 (4/10)
- 사진전람회 각 도들에서 진행 (4/10)

■ **보통강 강안다락식 주택구 관련 김정은 공개활동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2.4.3., 4.14.)**

- 노동신문 4월 3일자 1~3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의 보통강 강안다락식 주택구를 돌아본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 리히용 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현송월·김용수 당 부부장이 동행하였으며 신문은 주택이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보금자리라고 밝힘.
 - 총비서는 “우리식의 경관설계리론을 확립하고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하며, “림화사업을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현대적 추세에 맞게 발전지향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함.
- 노동신문 4월 14일자 1~4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13일 진행된 준공식에 참석한 기사와 사진 및 조용원 중앙위 조직비서의 준공사를 게재함.
 - 준공식에는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하여 리일환 중앙위 비서,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히용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함.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리춘희와 최성원 책임방송원, 동태관 노동신문 논설위원의 집을 방문함.
 - 조용원은 준공사에서 “가까운 앞날에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며, “보통강 기슭의 희한한 전변과 같은 천지개벽을 련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영광스러운 건설대전의 선두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함.

■ **김정은,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2.4.12.)**

- 노동신문 4월 12일자 1~3면은 11일 진행된 송화거리 준공식과 김덕훈 내각 총리의 준공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하여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김영환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으며, 신문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에 따라 준공된 송화거리가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힘.
 - 김덕훈 총리는 준공사에서 “국난도 최대의 국난”이고 “겹쳐드는 격난 속에서도 기세차게 솟아난 눈부신 새거리”는 “충성과 위훈의 결정체”라고 강조하며 송화거리건설을 비롯하여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해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해 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피력함.

■ **김일성 110회 생일 경축 관련 김정은 공개활동 (노동신문, 2022.4.16.)**

- 노동신문 4월 16일자 1~3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김일성 11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보고대회 및 군중시위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무궁할 것이다» 제하의 보고를 함.
 - 행사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를 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갈 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선전
- 노동신문 4월 16일자 3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참배에는 부인 리설주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용원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동행함.

■ **김정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노동신문, 2022.4.17.)**

- 노동신문 4월 17일자 1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선전
 - 김정은 총비서는 국방과학연구 부문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연이어 쟁취하고 있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보도

■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전개하자 (노동신문, 2022.4.19.)**

- 노동신문 4월 19일자 1면은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제시
 - 기사는 혁명사상으로 당과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공세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
 - 이를 위해 “단 한 번의 선전선동으로도 대중을 공감시키고 격동시킬 수 있는 묘술을 체득”해야 하며, “참신하면서도 통속적이고 인식교양적 효과가 크게 선전선동사업을 하는 것”은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할 때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

■ **5개년계획 수행의 선차적 과제 (노동신문, 2022.4.20.)**

- 노동신문 4월 20일자 1면은 당 제8차대회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선차적 과제로 제시된 기간공업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간공업은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고 있으며, 기간공업이 잘되어야 자립 경제의 기초가 강화되고 경제발전의 활로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은 기간공업의 선차적 발전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공업의 발전에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당은 기간공업 부문에서도 금속과 화학공업 부문이 더욱 앞서나갈 것을 바라고 있으며, 기간공업 부문의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은 이러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2.4.21.)**

- 노동신문 4월 21일자 1면은 전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을 보도함.
 - 김덕훈 내각 총리의 지도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을 총화하고 상반기 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
 - 박정근 내각 부총리는 인재들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해 계획 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면서도 경제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잘못된 현상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
 - 모든 일꾼들이 인민경제계획은 곧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는 자각을 갖고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일 것이 강조되었으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주력할 것에 대한 문제도 논의

■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개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2.4.26.)**

- 노동신문 4월 26일자 1~10면은 전날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소식 및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4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은 김정은 총비서 및 부인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90년 전 북한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탄생이 혁명사와 민족사, 국가와 인민의 장래 발전에 가지는 의의에 대해 연설
 -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까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

- 노동신문 4월 26일자 13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대성산혁명렬사릉 방문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혈전만리를 해체며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항일선열들의 공적과 항쟁사를 경건히 회고하며 꽃다발을 진정했다고 보도
 - 김정은 총비서는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낮은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역사 및 국가의 부강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

- 노동신문 4월 29일자 1~7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27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및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행사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과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가
 -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을 통해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과 영웅성, 비약적인 발전상과 무적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
 - 김정은 총비서는 이외에도 27일에 열병식 보도를 진행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 기자, 촬영가, 편집원 등과, 28일에는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

- 노동신문 4월 30일자 1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열병식을 지휘한 군 지휘성원들을 치하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군 지휘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 열병식 관련 공헌을 치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
 - 행사에는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한 국방성 책임일꾼들, 군 군종사령관, 군단장들이 참석

〈대남〉

■ 김여정 등, 한국 국방장관 발언 관련 비난 담화 발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2.4.3., 4.5.)

- 노동신문은 4월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정밀타격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2일에 발표한 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
 - 박정천 비서는 “국방부 장관의 도발적인 망발에서 남조선군부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표적들과 남조선군을 피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함.
 - 김여정 부부장은 서 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며 “도발적 자극과 대결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발언
- 노동신문은 4월 5일 서욱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4일에 발표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
 -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하며, 한국이 “군사적 망동질을 하는 경우의 우리의 대응과 그 후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며 “남조선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망상을 삼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힘.
 - 또한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며 “무력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 교환 (조선중앙통신, 2022.4.22.)

- 조선중앙통신은 4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한 소식을 보도함.
 -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0일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김정은 총비서가 4월 21일 회답친서를 보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정상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언급하고 퇴임 후에도 남북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

- 김정은 총비서는 회답을 통해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간다면 남북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으며, 기사는 남북 정상들의 친서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강조

※ 알려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